

# “자율야구로 ‘V10’ 꼭 달성”

## 새 ‘호랑이 조련사’ 조범현 감독

“선수 스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자율야구로 ‘V10’ 신화를 이룩하겠다.”

올 시즌을 ‘꼴찌’로 마감한 ‘KIA호’에 조범현(47) KIA 코치가 신임 감독으로 승선했다.

조 신임 감독은 지난 18일 계약금 2억원, 연봉 2억원에 2년간 감독 계약을 마쳤다. 지난해까지 SK 사령탑을 역임한 조 감독은 지난 6월부터 KIA의 배터리 코치로 일해오다 KIA의 4대 사령탑을 맡게됐다.

이번 선임에는 조 신임 감독의 화려한 경력에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조 감독은 쌍방울과 삼성에서 포수 조련과 투수리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얻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SK에서 지휘봉을 잡았다.

조 감독은 지난 1982년부터 92년까지 OB와 삼성에서 활약했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배터리코치로 나서 쌍방울에선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포수로 평가되는 박경완(SK)을 길러냈다.

19일 KIA의 제 4대 지휘봉을 잡은 조 신임 감독을 광주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만나 앞으로의 목표와 내년 시즌 각오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KIA 감독으로 선임된 소감은.

▲한국시리즈를 9번이나 우승한 명문팀의 감독을 맡게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구단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엔 내 손으로 10번째 우승을 만들어 내고 싶다.



조범현 감독

마운드 보강 급선무

코칭 스태프 물갈이

이종범 더 뛰었으면

▲선수 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해 스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자율야구를 실천해 보고 싶다. 내년 시즌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마음껏 야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겠다.

-현 KIA 구단의 장단점은.

▲젊은 투수진이 최대 강점이다. 양현종, 문현정, 이범석 등의 구질이 매우 좋다. 이들이 가을훈련과 스프링캠프만 잘 넘기다면 내년 시즌 팀 전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 주력 멤버들과 신예 선수들의 전력차가 크다는 게 문제다. 그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선수 보강 계획은 없나.

▲아직 밝힌 단계는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다. 마운드 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코칭스태프에 대한 구조조정.

▲숫자가 너무 많다. 최소한의 폭에서 줄이고, 능력 여부를 따져 외부에서 영입할 부분은 영입하고, 내보낼 코치는 내보내도록 하겠다.

-이종범의 은퇴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 일단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겠다.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큰 선수이고, 아직 주루나 수비면에선 그 기량이 살아있다고 본다. 본인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내년에 도 함께 야구를 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시즌 목표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9위는 없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지 않나. 타 팀과 비교해서 전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을에도 야구를 하도록 하겠다. 물론 최종 목표는 우승이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 물러난 서정환 前감독

“명예회복만은 하고 싶었는데... 그제 가장 아쉽네요.”

지난 18일 KIA 사령탑에서 물러난 서정환(52) 전 감독은 19일 “성적을 못 냈으니 바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물러나고 나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 전 감독은 “무엇보다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특히 장성호, 홍세안, 이현근 등 어린 몸에도 팀을 위해 뛰어난 선수들에

## “기아 팬들에 미안... 폭 쉬고 싶다”

게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이들이 내년 시즌엔 조범현 신임 감독과 함께 좋은 성적을 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서 전 감독은 최하위로 마감한 이번 시즌에 대해선 “변명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시즌 초 그레이싱어를 일본 구단에 빼앗기고, ‘에이스’ 김진우마저 빠져 힘들게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내년엔 명예회복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를 수 없게 됐다”고 고진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 전 감독은 광주의 집을 정리한 뒤 조만간 서울로 올라가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그는 “내년 1년 동안은 폭 쉬 생각이다. 그 후에 야구공부도 하고 한국야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만형 최진철 ‘떠난다’

### 전북 프랜차이즈 스타 12년만에 은퇴 선언

그라운드’의 ‘영원한 만형’ 최진철(36·전북 현대)이 마침내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최진철은 19일 “주위에서 내년에 도전적으로 뛰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해줬고 나도 그렇게 판단했다. 갑작스런 결정이었지만 미련없이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1996년 송산대를 졸업하고 전북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최진철은 이로써 오랫동안 정들었던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다.

최진철은 수비수로 12년 동안 K-리그 312경기를 뛰면서 28골에 1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특히 최진철은 전북의 프랜차이즈 스타. 12년 동안 다른 구단으로 옮기지 않고 전북에만 머무른 의리파다.

국가대표로는 1997년 8월10일 브라질과 친선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2001년 미국에서 열린 북중미 골드컵 코스타리카전에서 첫 골을 쏘아올렸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에 힘을 보태며 스타로 떠오른 최진철은 지난해 독일월드컵에서 또 대표로 선발됐고 스위스와 경기에서는 상대 선수와 부딪쳐 눈덩이처럼 커져갔던 부상에서 회복하는 등 감동을 선사한 뒤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 마지막 경기도 ‘쓴잔’ 기아, 한화에 3-4 패

KIA타이거즈가 플레이오프 시즌 도중 열린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조범현 신임 감독 체제로 첫 경기를 치른 KIA는 19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2007 프로야구 한화와의 경기에서 3-4로 패했다. 삼성 양준혁과 시즌 막판까지 타격왕 대결을 벌였던 이현근은 이날 1타수 무안타에 그쳤으나, 안타 153개와 타율 0.338로 시즌을 마감하며 두 부문에서 양준혁(안타 149, 타율 0.337)을 모두 누르고 타격, 안타왕에 올랐다. 이현근은 또 올 시즌 팀내에서 유일하게 126게임, 전 경기 출장 기록도 세웠다. 역대 전 경기 출장 타격왕으로 5번째고, KIA 타격왕으로 85년과 88년 김성현, 92년 이순철, 94년 이종범, 2006년 이용규에 이어 6번째이다.

이날 경기를 끝으로 올 시즌 126경기를 모두 소화한 KIA는 시즌 전적 51승 74패 1무, 8위로 시즌을 종료했다.

한편 최근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단장과 감독을 전격 교체한 KIA는 20일부터 경남 남해 훈련 캠프를 시작으로 내년 시즌을 대비한 본격적인 가을 훈련에 돌입한다.

KIA는 훈련일정을 1, 2차로 나눠 20~29일에는 경남 남해에서 훈련을 갖고, 11월 2~29일에는 일본 미야자키 휴가사에서 2차 마무캠프를 차릴 예정이다. 선수단은 일본 캠프를 마치고 12월 한 달간 자율훈련에 들어간 뒤 동계합동훈련을 시작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천수, 이번엔 공차나

### 리그 8차전 출장 기대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예노르트 로테르담에 이적해 한 달 가량 착실한 컨디션을 끌어 올리고 있는 이천수(26)가 데뷔전을 치를 기회를 다시 잡았다.

페예노르트는 21일 새벽 3시(이하 한국시간) 홈구장인 퀴프 스타디움에서 엑셀시오르와 2007-2008 정규리그(에레디비지) 8차전을 치른다.

지난달 22일 출국한 이천수는 한 달 휴식



이미나의 세컨 샷

19일 광주 마우나오션컨트리클럽에서 개막된 LPGA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2007’ 1라운드에서 공동선두(69타)로 나선 이미나(KTF)가 마지막 홀에서 우드로 세컨샷을 하고 있다. /\*연환수

## 이미나 ‘출발이 좋아요’

###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1R ... 페테르센과 공동선두

이미나(26·KTF)와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한국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첫날 공동 선두를 달렸다.

이미나는 19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골프장(과72.6천270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3언더파 69타를 스코어카드에 적어내 페테르

센과 함께 리더보드 상단에 자리했다.

강한 바람이 불어 비거리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미나는 정확한 아이언샷으로 그린을 공략, 한국 무대에서 LPGA 투어 세번째 우승을 바라보게 됐다.

전반을 보기 없이 1타를 줄인 이미나는 10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했지만 12번홀(파4)에서 1타를 잃은 뒤 파행진을 계속했다.

하지만 파4홀인 17번과 18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선두 자리에 올랐다. 이미나는 “샷감각은 좋았는데 위에서 도는 바람에 거리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작년 대회에도 참가한 만큼 핀 위치도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정(27·기업은행)과 문현희(24·힐라코리아), 김주미(23·하이트) 등 4명이 1언더파 71타, 공동 3위에 올라 선두권을 추격했다. 한편 국내 1인자 신지애(19·하이마트)는 보기 3개에 버디는 2개에 그쳐 1오버파 73타로 공동 13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원희 올림픽 2연패 ‘시동’

###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출전

‘유도 그랜드슬램’ 이원희(26·KRA)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통해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의 첫 단추를 꿰었다.

23일부터 전남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5회 대통령배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그 무대로 이원희는 73kg급에 출전한다.

5월 독일에서 발목 수술을 받은 뒤 9월 전국체전에 81kg급으로 한 체급 올려 출전했던 이원희는 “몸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다. 정상을 100으로 보면 지금 60 정도 밖에 안 돼 있다”고 말했다.



20일(토)

▲2007 LPGA 하나은행 코오롱 챔피언십 골프 2R(12:30·MBC ESPN)

▲07/08 프로농구(KTF·삼성)(14:45·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SK·모비스)(14:50·Xports)

▲2007 일본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 <요미우리·주니치>(17:45·SBS스포츠)

▲2007 K리그 플레이오프 6강(경남·포항)(19:00·KBS N SPORTS·MBC ESPN)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버튼·리버풀)(21:00·MBC ESPN)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미들스

브로·첼시)(23:00·MBC ESPN)

21일(일)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아스톤 빌라·맨체스터Utd)(01:00·MBC ESPN)

▲07/08 네덜란드리그(페예노르트·엑셀시오르)(03:00·SBS스포츠)

▲AL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클리블랜드·보스턴)(08:50·Xports)

▲2007 LPGA 하나은행 코오롱 챔피언십 골프 최종(12:30·MBC ESPN)

▲07/08 프로농구(LG·KTF)(14:45·SBS스포츠)

▲2007 K리그 플레이오프 6강(울산·대전)(15:00·KBS N SPORTS·MBC ESPN)

▲2007 일본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 <요미우리·주니치>(17:45·SBS스포츠)